

## 영남지역 논 작부체계 적응 벼 품종 선정

김상열<sup>1\*</sup>, 서종호<sup>1</sup>, 배현경<sup>1</sup>, 황정동<sup>1</sup>, 오명규<sup>1</sup>

<sup>1</sup>경남 밀양시 점필재로 20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 [서론]

현재 농촌노동력 감소와 더불어 동계작물 재배를 기피하므로써 경지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어 논 이용 다양화를 위한 다모작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작부체계 개발은 쌀 부족시 언제든지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논 기반을 유지한 작부체계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논 기반을 유지한 작부체계 개발에는 무엇보다도 지역별 다양한 소득작물전후작 작부체계에 알맞은 벼 품종선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득작물 전후작 벼 재배에서는 조기재배 또는 만식재배가 되므로 벼 생육 초기 및 등숙기에 불량환경이 된다. 따라서 이에 적응한 품종은 보통기에 재배되는 품종보다 생육일수가 짧아야 되며, 생육일수 단축에 의한 수량 감소가 적고 또한 생육후기 고온 또는 저온 환경에서 등숙해야 하므로 이들 환경에서 등숙적응성이 높아 미질이 나빠지지 않아야 하는 등 보통기 재배와는 품종의 형질이 달라야 한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영남지역에서 소득작물후작으로 조생종 품종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재배 시기별 벼 품종에 자료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영남지역 다양한 작부체계에 알맞은 벼 품종을 선발하고자 숙기가 다른 벼 품종을 이용하여 남부작물부(밀양)에서 포장시험을 실시하였다.

### [재료 및 방법]

시험 벼 품종은 생태형별로 전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조생종은 운광벼, 조광벼, 해당쌀, 오대벼, 조광벼, 조생흑찰 등 6품종, 중생종은 하이아미, 삼덕벼, 대보 등 3품종, 중만생종은 새누리, 신동진, 현품, 새일미, 삼광 등 5품종을 사용하였다. 이앙시기는 30일묘를 6월 5일(적기), 만기 6월 25일, 7월 5일 3시기로하여 손이앙하였다. 재식거리는 6월 5일 이앙은 30x14cm, 6월 25일 및 7월 5일 이앙은 30x12cm로 3본을 이앙하였다. 시비량은 질소-인산-칼리를 9-4.5-5.7kg/10a처리하였고, 기타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시험연구 조사기준에 준하였다.

### [결과 및 고찰]

백미 수량, 완전미 수량, 포장 도복 및 작기 연결의 안전성 기준, 영남지역 논 적응 조생종 품종은 6월 5일 이앙시 운광, 오대벼, 6월 25일 이앙시 운광, 조광, 해당쌀, 7월 5일 이앙시 운광, 해당쌀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중생종 품종은 6월 5일 이앙시 하이아미, 대보, 삼덕벼, 6월 25일 이앙시 하이아미, 삼덕벼, 7월 5일 이앙시 숙기가 늦어 적응 품종이 없었다. 한편, 중만생종은 6월 5일 이앙시 새누리, 신동진, 새일미, 삼광, 현품, 6월 25일 새누리, 새일미, 삼광, 현품, 7월 5일 이앙시 숙기가 늦어 적응 품종이 없었다. 한편, 식량작물 2모작 벼 후작으로 밀/양파를 심을 경우, 보통 11월초에 파종(이식)을 하여야 하므로 10월 중순 경에 수확될 수 있는 벼 품종인 중생종 하이아미, 삼덕벼가 적응 품종이 될 수 있고, 봄감자-벼-시금치 3모작 벼 후작으로 시금치를 심을 경우 보통 11월초에 시금치를 파종하지만 벼 전작물로 봄감자의 수확이 6월 중순에 가능하므로 7월 초에 이앙가능한 조생종인 운광벼, 조광벼 및 해당쌀이 적응 품종으로 판단된다. 소득작물 2모작 봄감자/뜻옥수수-벼 작부체계 봄감자와 뜻옥수수 후작 벼는 봄감자와 뜻옥수수는 6월 중순에 수확하므로 6월 25일경에 이앙하여도 수량 및 품질이 우수한 중만생종인 새일미, 새누리, 삼광, 현품이 적응 품종으로 판단된다.

###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175905)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55-350-1163, E-mail. kimsy3@korea.kr